

# 황금사자기

2

2019년 7월 1일 월요일  
스포츠동아 제3114호

유신고 출신 선배 KT 유한준·김민

유한준 “감독님 열정 대단”  
김민 “후배들아 한턱 쏘게”

“저도 못한 일을 해낸 후배들입니다.”

유신고의 황금사자기 우승은 출신 선배들에게도 경사였다. 경기도 수원시 소재 유신고는 KT 위즈의 1차지명 대상 학교다. ‘캡틴’ 유한준(38)과 ‘영건’ 김민(20) 등 유신고 출신 선수들은 KT의 투타 중심을 잡고 있다. 유신고의 우승 이튿날인 30일 만난 이들은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다. 유한준은 “29일 수원 KIA 타이거즈전 때문에 우승 확정 순간은 못 봤다. 하지만 경기 준비 직전까지 중계를 보며 응원했다. 경기 후 제일 먼저 확인했고, 우승을 했다는 소식에 정말 기뻐했다”고 밝혔다.

유한준은 1997년 유신고에 입학했다. 1995년 유신고에 부임한 이성열 감독은 당시만 해도 3년차 감독이었다. 하지만 이 감독은 올해까지 25년째 한 팀에서 지휘봉을 잡고 있다. 유한준은 “이 감독님은 유신고에서만 25년째다. 정말 대단한 열정과 체력이다. 유신고 시절 나를 잘 챙겨주신 인사입니다. 지금도 자주 연락드리지만 어제 통화는 조금 더 뜻 깊었다”고 밝혔다.

졸업한지 1년을 조금 넘는 김민에게 이번 우승은 더욱 뜻 깊었다. 그는 “고등학교 3년 내내 전국대회 8강이 최고 성적이었다. 나도 못한 걸 해낸 후배들이 고맙고 기쁘고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그가 3학년 때 입학한 소형준(18)은 어느덧 훌쩍 자라 학교의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대회 최우수선수(MVP)도 그의 차지였다. 김민은 “(소)형준이가 첫 등판에서 4사사구로 고전했다. 담에 걸렸는데, ‘밀밥 깔지 말라’고 했다”라며 웃은 뒤 “이번 대회 정말 고생이 많았다. 축하 인사도 했지만, 조만간 맛있는 음식 사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겠다”고 말했다. 수원 | 최익래 기자

편집 | 안도영 기자 do2@donga.com

## 1 첫 우승 2 예비 KBO리거 3 이번...3가지 키워드로 돌아본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



1984년 창단된 유신고가 황금사자기 첫 패권을 차지했다. 유신고는 6월 29일 목동구장에서 열린 제73회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 결승에서 마산용마고를 10-4로 따돌리고 창단 첫 우승의 감격을 누렸다. 유신고 선수단이 우승 확정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목동 | 양희성 동아일보 기자 yohan@donga.com

# 유신고 첫 우승 뒤엔 ‘황금팔’ 소형준 있었다

결승전 V투 포함 5경기 ERA 0.73  
히트 이민호·마산용마고 김태경 등  
프로행 앞둔 3학년들 강렬한 눈도장  
인상고·충훈고 명승부 또다른 감동



동아일보·스포츠동아·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공동 주최한 제73회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이 29일 목동구장에서 열린 마산용마고-유신고의 결승전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17일부터 13일간 총 46개 팀이 열전을 벌였고 이성열 감독이 이끄는 유신고가 첫 우승 트로피를 손에 넣었다.

이번 대회에선 2020시즌 KBO 신인드래프트 지명이 유력한 선수들이 화려한 퍼포먼스를 펼친 것은 물론이고 역사가 길지 않은 팀이 파란을 일으키는 등 고교야구가 지닌 매력에 한껏 발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 ●창단 35년만에 첫 우승 거머쥔 유신고

유신고는 1984년 창단해 준우승만 두 차례(1998년·2006년) 차지한 팀이다. 그러나

개인상	이름	소속	비고
최우수선수상	소형준	유신고	
우수투수상	허윤동	유신고	
감독상	김태경	마산용마고	
수훈상	소형준	유신고	
타격상	박시원	광주일고	타율 0.583
최다안타상	김혁준	마산용마고	8안타
최다타점상	김혁준	마산용마고	8타점
최다득점상	김혁준	마산용마고	6득점
최다홀런상	최지강	광주중성고	2홀런
최다루상	박시원	광주일고	4루
감독상	이성열	유신고	감독
지도상	민유기	유신고	부장
공로상	김동섭	유신고	교장

이번 대회에선 달랐다. KT 위즈의 1차지명이 유력한 투수 소형준의 호투를 앞세워 신일고~성남고~부산정보고~광주제일고~마산용마고를 연파했다. 성남고와 16강전부터 결승전까지 4게임에선 경기당 평균 1.5점(총 6점)만을 허용한 째물투와 안정된 수비가 돋보였다. 특히 소형준은 이번 대회 5경기에 모두 등판해 평균자책점 0.73(12.1이닝 1차책점)의 호투를 펼치며

고교 상위 랭킹 투수라는 평가가 틀리지 않았음을 입증했다. 결승전에서도 5.1이닝 2안타 무4사구 5삼진 무실점을 기록하며 승리투수가 됐다.

### ●예비 KBO리거들의 반란

KBO 10개구단의 1차지명이 유력한 선수들이 경기에 나서는 날이면 각 구단 스카우트들은 유난히 바쁜 시간을 보냈다. 서울의 한 구단은 이번 대회를 지켜보고 1차지명 선수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기도 했다.

유신고의 우승을 이끈 소형준 등 1차지명이 유력한 선수들의 퍼포먼스는 눈부셨다. LG 트윈스의 1차지명이 확정된 이민호(휘문고)는 이번 대회 2경기에서 평균자책점 1.86을 기록했고, 17일 경기상고와 1회전에 선 오전 9시30분의 이른 시간에 경기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구속 148km를 기록해 보는 이들을 놀라게 했다. NC 다이노스의 1차지명이 유력한 김태경(마산용마고)도 2경기(12이닝)에서 자책점 없이 2승을 거뒀다. 이외에도 다수의 3학년 선수들이 스카우트들의 눈도장을 받으며 프로행

의 꿈을 키웠다. 3학년 선수들은 하나 같이 “동기들이 모두 잘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빼놓지 않았다.

### ●‘야구 몰라요’ 이번도 속출

대회 초반부터 전통의 강호들이 고전하는 등 이번이 속출했다. 2012년 창단한 전북 정읍시의 인상고는 2회전에서 신지후~유지성~김양수 등 특급 투수들이 버티고 있는 천안북일고를 상대로 15-2, 5회 콜드게임승을 거두기도 했다. 이 경기를 보지 못한 일부 야구인들은 “어떻게 된 일인가” 입을 다물지 못했다. 휘문고는 올해 재창단한 경기상고를 맞아 9회초까지 3-7로 끌려가다가 가까스로 8-7의 역전승을 거두기도 했다.

2007년 창단한 충훈고의 4강 진출도 화려했다. 비록 4강전에서 마산용마고를 상대로 9회초까지 7-0으로 앞서다 9회말 7-8로 역전패하며 아쉬움을 남겼지만 우승 후보로 꼽히던 충훈고를 16강에서 꺾는 등 이전과 달리진 모습에 많은 이들이 박수를 보냈다. 정희선 충훈고 감독은 “우리는 조직력 하나로 승부한다”고 비결을 전하기도 했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 MVP 소형준 “KT에 1차 지명 받는다면 영광일 것”

“최우수선수(MVP)요? 정말 기대 안 했어요.”

하루가 지났지만,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말투였다. 제73회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유신고 에이스이자 대회 MVP인 소형준(18)은 30일 전화통화에서 “MVP는 정말 기대하지 않았다. 시상식 중에도 옆에 있던 (허)윤동에게 ‘축하한다’고 했다. 당연히 운동이가 받을 줄 알았다”고 말했다. 허윤동(18)은 대회 4경기에서 13이닝을 소화하며 2승, 평균자책점 2.08을 기록했다. 허윤동은 대회 승부처였던 광주일고와 4강전에서 6.1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하며 결승행 발판을 냈다. 우수투수상을 받은 허윤동은 MVP로 소형준이



유신고 소형준

신인 1차지명에서 KT 위즈 입단이 확정된 그는 대회 MVP를 수상하며 겹경사를 맞았다.

소형준은 “지난 겨울부터 전국대회 우승만 보고 준비했다. 우승 행차에 장면을 정말 많이 상상했지만

호명되자 진심어린 축하를 보냈다.

소형준은 팀이 치른 5경기에 모두 등판해 12.1이닝을 소화하며 1승무패, 평균자책점 0.73으로 활약했다. 아마야구 최고 투수라는 이유를 증명했다. 7월 1일 열리는 ‘2020 KBO 신인 1차지명’에서 KT 위즈 입단이 확정된 그는 대회 MVP를 수상하며 겹경사를 맞았다.

소형준은 “지난 겨울부터 전국대회 우승만 보고 준비했다. 우승 행차에 장면을 정말 많이 상상했지만

막상 대회가 시작되니 경기 집중하느라 멋진 마무리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고 밝혔다.

호투 행진으로 MVP까지 받았지만 아쉬움은 남았다. 소형준은 대회 직전부터 옆구리 담 증세를 겪었다. 첫 경기였던 신일고전에서도 3.1이닝 4실점(1차책)으로 고전했다. 이후 무실점 행진이 펼쳐졌지만 그는 “안 아픈 상태에서 던졌다면 더 완벽한 모습이었을 것 같아서 아쉬웠다”고 말했다.

1차지명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소형준은 “1차지명보다 황금사자기 우승이 더 기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는 “KT의 1차지명을 받게 된다면 정말 영광일 것이다. 하지만 남은 대회가 많다. 6일부터 청룡기가 시작된다. 첫 대회를 우승으로 이끈 분위기를 이어서 좋은 성적 내는 것만 신경 쓰겠다”고 책임감을 드러냈다.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 두산, 성남고 우완투수 이주엽 지명 결정

### KBO 서울권 신인 1차지명 모두 확정

2020시즌 KBO 신인지명회의의 서울권 1차지명 선수가 모두 확정됐다.

우선권을 지닌 LG 트윈스가 휘문고 우투수 이민호, 2순위 키움 히어로즈가 장충고 외야수 박주홍을 일찌감치 지명했다. 성남고 우투수 이주엽과 좌투수 이종민을 놓고 고민한 두산 베어스는 이주엽을 선택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30일 취재결과 밝혀졌다. 수차례 회의 끝에 어렵게 결론을 도출했다.

두산 구단은 제73회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동아일보·스포츠동아·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공동주최) 개막전부터 다수의 후보를 놓고 고민했다. 당시 두산 스카우트팀 관계자는 “이번 황금사자기 1차지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애초 3명이었던 후보군은 대회 2회전을 지나면서 이주엽과 이종민 두 명으로 좁혀졌고, 내부 회의 끝에 이주엽을 선택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주엽은 키 188cm, 체중 88kg의 당당한 체격을 지닌 우투수

다. 올 시즌 주말리그와 황금사자기를 통틀어 총 10경기에 등판, 4승2패, 평균자책점 2.31의 성적을 거뒀다. 35.1이닝 동안 47삼진/8볼넷, 이날만 출루 허용(WHIP) 1.06으로 홈 잡을 데 없는 기록을 보여줬다. 황금사자기 2경기에서도 9이닝 동안 2실점(비자책점), 11삼진, 2볼넷의 빼어난 투구를 했다. 이주엽은 이번 대회를 통해 포스트시즌(포심) 최고구속을 146km까지 끌어올리는 등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부상이 없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타자로도 올 시즌 9경기에서 타율 0.333(2타수8안타)를 기록했다. KBO는 1월 10개 구단의 1차지명자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동행복권  
10만원  
만 19세이면 NO!  
2천원 구매  
100% 당첨률

Lotto 6/45 865 회 당첨번호 (추천일: 2019년 6월 29일)

1등 당첨번호	2등 보너스 번호
3 15 22 32 33 45	2

1등 총 당첨금 20,172,478,478원

등위 및 당첨개수	당첨금(원)	당첨금 내역
1등 6개 숫자 일치	13	1,551,729,145 원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75%
2등 5개 숫자 일치 + 2등 보너스 일치	52	64,655,382 원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3등 5개 숫자 일치	2,076	1,619,499 원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4등 4개 숫자 일치	104,626	50,000 원 90,000 원
5등 3개 숫자 일치	1,749,234	5,000 원 5,000 원

\*당첨금: 1등은 100% 지급, 2등은 95%, 3등은 90%, 4등은 85%, 5등은 80% 지급

· 동행복권 고객센터: 지역별 1588-6450 · 인터넷 당첨번호 안내: www.dhlottery.co.kr  
당첨금 지급기간: 해당 회차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까지

복원 구입시 유의 사항  
· 복권은 만일 1회 10원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 복권을 구매하거나 당첨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 자선 복권 구매는 동행복권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후원전화번호: 080-800-0500 www.kk.or.kr